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BCD) 모델을 적용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안산 일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by Applying
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ABCD) Model

: Focusing on Ansan Ildong

신 수 경**·이 상 헌***

Suegyung Shin·Sanghun Lee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지역자산화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하 ABCD)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CD 모델은 모든 지역사회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의 자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개인, 네트워크, 물리적 자산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자산이 어떻게 발굴, 연계, 활용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구 일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전망 구축 사례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과 결합하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혁신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논문 접수일: 2023. 1. 25. 심사기간: 2023. 1. 25. ~ 2023. 3. 7. 게재확정일: 2023. 3. 7.

여 개인, 네트워크, 물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ABCD 모델의 적용 가능성,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가치이다. 본 연구는 지역 내부 역량에 집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ABCD 모델이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BCD) 모델, 지역자산, 지역사회 발전, 주민자치회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model to determine a plan to rejuvenate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the Board). The ABCD model emphasizes that every community has assets and that identifying and effectively utilizing the community's asset characteristics is critical, with the community taking the initiative. The study classified the level of local assets analysis into the personal, network, and physical assets, and analyzed how these assets were discovered, linked, and utilized.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successful cases of the Ildong Residents' Autonomy Board in Sangnoksu-gu, Ansan-si, and Gyeonggi-d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establishing a safety ne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nsan Ildong Residents' Autonomy Board actively discovered and comprehensively linked individual, network, and physical assets, in combination with various network organizations such as resident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schools, thus contributing to the activ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The study'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applicability of the ABCD model to community development, particularly as a methodology for revitalizing the Board.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ABCD model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by focusing on the community's internal capacity and is valuable as an educational tool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ommunity members.

□ Keywords: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ABCD) Model, Local Assets, Community Development,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I. 서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김대중 정부(1999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주민 대표기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의 직능단체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전대욱, 최지민, & 최인수, 2022:79; 오수길, 2014:11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동에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안전행정부, 2013).¹⁾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기구에 불과한 반면 주민자치회는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외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와 심의, 지방정부의 위임과 위탁사무까지 기능이 확장되었다(김순은, 2014:14).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가 제외되어 주민자치회 전환이 전면 확대되지 못하고 10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김정인, 2022:119).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 3,501개 읍면동 중 1,013개(136개 시군구/16개 시도)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신수경 & 이상헌, 2021; 전대욱, 최지민, & 최인수, 2022; 김정인, 2022; 김정재, 2022; 김순은, 2014).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착과 더불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역할이나 동원되는 주민조직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토대 위에 지역사회의 자산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주민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하 ABCD)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자산을 발굴하고 연계·활용하는 것이 주민자치 실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시기 마을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구 일동 주민자치회 사례에 주목하여, 문헌분석과 현장 방문, 주민자치회 임원과 주민 활동가를 대상으로 개별 심

1)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안행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31곳 선정. (작성일 2013년 6월 4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9722 (검색일: 2023.1.11)

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지역자산을 적극적·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활용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지역사회 발전이론

1) 지역사회(community)

커뮤니티((community)는 사전상 특정 지역이나 국가 등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한 ‘주민’, ‘지역사회’ 또는 종교·인종·직업 등이 같이 사람들의 ‘공동체’, ‘공동사회’를 뜻한다.²⁾ 일부 연구자들은 공통된 장소라는 지역성을 강조해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로 번역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는 “정체성 및 목적의식을 공유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사회 구성원이 집합적인 행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남수연, 2018:430)”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Lunt, N(2019)의 ‘자산 및 역량 기반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연구와 같이 읍면동 단위의 지리적 특성과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 하는 공동체의 기능적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 커뮤니티((community)를 ‘지역사회’로 번역하되, ‘지역사회’를 ‘공동체’나 ‘지역공동체’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 발전(community development)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 발전이론에는 ‘외생적 지역발전론’과 ‘내생적 지역발전론’이 있다. 우선 외생적 지역발전론은 “정부가 전문가 집단이 외부 수요와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전략 (박인권, 2012:6)”으로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국가발전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취해”왔다(주인석, 2020:120). 간략하게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진흥을 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박경, 2008:90). 내생적 지역발전론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2) 출처: 옥스퍼드 영어사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d35990cca8bd405c8b721041721b9fad>. (검색일: 2023.1.15.)

하는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성장이라는 피상적인 양적 목표보다 주민의 소득증대,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진과 같은 실질적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박인권, 2012:7).

또한 1976년 서구근대화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한 츠루미 카즈코의 내발적 발전론은 “근대화의 폐해에 직면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내재해 있는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을 새롭게 고찰·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생활문화와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이론이다(지경배, 2003:296). 박경(2008:102)의 연구에 따르면, 1970~80년대 지역 유치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정부 지출의 삭감을 이유로 등장한 유럽의 내생적 발전론의 경우 기능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은 “고도성장기(1960~1970년대)의 외래형 지역개발이 가져온 문제점을 고발·비판하면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념적이며 운동론적인 지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남수연(2018)은 지역사회개발을 이끄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기술지원적 접근(Technical Assistance Approach)’으로 개발도상국처럼 지역사회 내 기존자원의 활용이 부진하거나 부족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 행정적 노하우나 물리적 자원을 지원하는 접근법이다(Poats, 1972. 남수연, 2018:434 재인용).³⁾ 두 번째 접근법은 ‘자조적 접근(Self-Help Approach)’으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구성원 간 관계의 양과 질이 향상되어 사회의 집합적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남수연, 2018:436). 이처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지역사회 발전 접근법의 비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주목할 점은 자조적 접근법의 경우 이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개발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표 1〉 참조).

〈표 1〉 기술지원적 접근법과 자조적 접근법 비교

요인	기술지원적 접근	자조적 접근
사회에 대한 관점	- 기능중심적 - 관료중심	- 관계중심적
개인에 대한 관점	- 사회구조를 통해 결정	- 본질적으로 선함
기본적 가정	- 과학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제공 - 최대한 단시간 내 문제 해결 (효율성 강조)	- 지역사회구성원이 자신들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미) 소유 -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중점

3) 기술지원적 접근법은 강요된 지역사회개발, 도구적 접근법, 지시적 접근법, 개발자 중심 접근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남수연, 2018: 434).

요인	기술지원적 접근	자조적 접근
의사결정 주체	- 개발공여기관의 개발관료 - top- down 접근	- 지역사회 리더들과 구성원 - bottom- up 접근
지역사회 자원투입/ 참여도/ 학습정도	- 낮음	- 높음
주요 목적	- 기술적 문제 해결	- 지역사회 역량강화
개입시 중점부분	- 시간, 결과	- 참여, 과정

출처: 남수연(2018:437) 참조하여 정리

또 주목할 만한 지역사회 발전 모델로 ‘부족’의 관점과 ‘자산’의 관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부족의 관점’은 공동체의 요구, 결핍 및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필요기반(Need-based) 접근 법으로 지역사회 발전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지역개발의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발전 방식이다(Kretzmann & Mcknight, 1993:1; Phillips & Pittman, 2008:39). 이 필요기반 커뮤니티 발전 모델은 특히 대학, 기관 및 정부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지역사회가 얼마나 자립하게 되었는지보다 자원을 얼마나 끌어왔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몇 명의 리더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지역사회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켜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Kretzmann & Mcknight, 1993:4; Mathie & Cunningham, 2003a:2, 2003b:482). 또한 필요기반 접근 모델은 지역 그룹이 자체 커뮤니티보다 외부 기관과의 관계를 더 많이 다루고 의지함으로써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여 정작 지역사회 내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자도 있다(Mathie & Cunningham, 2003b:482; 2003a:12). 이러한 외부 지원과 전문 지식은 지역사회를 희생시키면서 지역 관행에 대한 무시나 정부의 이익을 위한 거버넌스가 결합 되어 지배와 포섭을 조장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지식이 지역 지식을 희생시키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점점 더 지배하고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다(Mathie & Cunningham, 2003b:482; UN HABITAT, 2008:25). 무엇보다 필요기반 발전전략에서 파생된 ‘장소 번영(장소 지향적)’ 정책은 도시의 황폐함을 활성화하고 개선하면 시장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장소 활성화에 집중된 정책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빈민가를 정리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을 시도하는 등 다른 지역을 희생시키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략할 수 있다(UN HABITAT, 2008:3).

필요기반 모델과 달리 ‘자산의 관점’에서는 공동체의 역량과 자산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

하 ABCD) 모델이 대표적이다(Kretzmann & Mcknight, 1993). ABCD 모델은 자산기반(Asset-Based), 내부중심(Internally Focused), 관계중심(Relationship Driven)의 지역사회 발전의 대체적인 접근법으로서, 지역 도시 근린의 내부 자산 발전을 강조한다.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 모델의 특징은 뒤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30여년 전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 추진자와 자금 제공자는 국가였으나,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공공부문은 축소되었고 이 자리를 민간부문 기관과 시민사회조직(예. NGO)이 지역사회와 공공 및 민간 자금 제공자 간의 주요 중개자가 되었다(Mathie & Cunningham, 2003a:8). 따라서 정부와 시장, 비정부기구(예. NGO)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유연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모델

1) ABCD 모델 개요

ABCD 모델은 1980년대 이후 정부나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미국에 신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었고(한상일 & 김경희, 2013:158), 그 결과 기존의 필요기반 접근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의 내부 자산에 집중하는 대안적인 지역사회 발전 모델로 새롭게 주목받았다. 본격적으로 1990년대 초부터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자산기반 지역사회발전협회(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를 중심으로 외부 환경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의 자산을 스스로 개발하여 긍정적인 공동체의 역량을 발견하고 키우는 전략이 제시되었다(한상일 & 김경희, 2013:159).

지역사회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공동체 발전방식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이나 공간이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하게 했다(Kretzmann & McKnight, 1993:5).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유한 개인, 협회, 조직 및 기관을 내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Forrester et al., 2020:2; Kretzmann & Mcknight, 1993:5).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주체보다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실천적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어왔다(한상일 & 김경희, 2013:155).

다른 접근 방법들이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등의 개인과 사회의 열악한 환경이나 방치된 물리적 자원을 지역문제로 간주했다면, ABCD 모델은 사람과 환경의 잠

재된 역량을 발굴하여 공동체의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는 지역자산의 자산화에 주목한다(한상일 & 김경희, 2013:159). 또한 ABCD 모델은 물리적 환경에 뿌리를 둔 ‘장소’보다 ‘관심’에 기반한 커뮤니티 개발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Phillips & Pittman, 2009:38~39). 즉, ABCD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집중이다. 공식 및 비공식 협회, 네트워크 및 대가족도 자산으로 취급되며 커뮤니티의 다른 자산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자본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여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를 사회적자본이 생성된 사회적 관계의 증거로 본다(Mathie & Cunningham, 2003b:479). 따라서 ABCD 모델은 지역 자산에 기반해 사회적자본을 형성해나가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ABCD 모델의 논란과 쟁점

ABCD 모델을 적용하기에 앞서 ABCD에 대한 한계와 논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해보면, 첫째, ABCD가 국가의 책임을 개인과 지역사회에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공적 생활의 개인화, 시장화 및 사유화에 대한 “응답이자 항복”이라는 주장이 있다(MacLeod & Emejulu, 2014:431). 비슷한 관점에서 Friedli(2013)는 자산기반 접근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할 때 “시장의 규제 완화와 시민의 사회적 권리 철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40p).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국가가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개별 시민과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산기반 발전전략은 외부 자원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며, 외부 자원보다 선행하는 주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피하게 추가 자원을 확보할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ABCD는 지역사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다. “공동체 내의 자산은 거대한 개발 과제를 충족시키기에는 늘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Kretzmann & Mcknight, 1993:7). 오히려 공공부문 개혁은 예산 삭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단기적 지출 및 단기적 우선순위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큰 사회(Big Society)”의 기치를 내걸기 일쑤다. 그 사이 정부들은 시민의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집단에게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집단의 역량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이 없다(N Lunt, 2019:65). 즉, 자산 및 역량 기반 접근법은 정부 예산이 줄어들었으므로써 그 간극을 개인과 지역사회가 메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개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N Lunt, 2019:66). 둘째, 자산기반 접근 방식을 지역공동체에 적용하려면 이미 상당히 강력한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러한 주장은 지역사회의 내부 리더십이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기 어렵고, 필요와 결핍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는 오히려 불평등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MacLeod & Emejulu, 2014:446). 그러나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ABCD의 관점과 방향을 이해한다면 강력한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와 시민사회의 개입 정도에 대한 논쟁이다. 개입은 일반적으로 문제와 결합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지역사회가 자신을 피해자로 폄하하거나, 외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내세우도록 부추기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관심 있는 외부인을 자선가로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결코 효과적이지 못하다(Bergdall, 2003:1). Mathie & Cunningham(2003a)에 따르면 시민사회(예. NGO)의 경우 주요 기부자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받고 결과 시스템(사업의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에 따라야 하는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즉, NGO가 지역사회의 지역자산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체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통제된 ‘개발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세심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BCD 모델은 오히려 정부의 지역사회 내부 역량에 대한 지원 전략과 시민사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

3. 지역자산 분석수준과 측정방식

자산(asset)은 사람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상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원천으로써 의미를 지닌다(Mathie & Cunningham, 2003a:4). 특히 지역의 경우 지역의 자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활용할 것인가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역자산(local assets)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뜻한다(한창목, 2018). 즉, 지역자산은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왕건 et al, 2011:6). 윤지영(2015)의 경우 지역자산을 크게 유·무형으로 나누고, 유형 자산은 구조적 자산과 자연환경 자산, 무형 자산은 인적 자산과 사회·문화적 자산, 경제적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박인권(2012)도 지역자산의 종류로 유형 자산은 자연적, 건조 환경, 문화·관광 등, 무형 자산은 문화·관광, 사회적자본, 이미지, 개인의 역량, 결사체 자산, 기관 자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왕건 et al.(2011)은 지역자산을 공간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자연적(장소적, 환경적) 자산, 구조적(공간적, 시설적) 자산, 문화적(역사적, 관광적) 자산, 사회적(인적, 이미지) 자산, 경제적(기업체, 노동력) 자산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강현철 & 최조순(2019)은 이를 구조적 자

산, 자연자산, 사회적 자산, 경제적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Mathie & Cunningham(2003a:6)은 성공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자산(인적 자본)과 기관 자산(사회적자본), 지역경제 자산(물리적·자연적·금융적 자본)으로 분류하고, 종합적인 지역자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이연숙 & 박재현(2014)의 경우 지역자산을 Hardware, Software, Humanware로 분류하여 도시재생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과 달리 문화적, 심리적 특성이 강한 무형의 자산의 경우에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중 최근까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 자산 및 자본의 개념에서 주체들의 강점과 역량에 집중한 Kretzmann & McKnight(1993)의 분석수준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한상일 & 김경희, 2013:161). 이들이 ABCD 관점에서 강조하는 지역자산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개인과 조직, 기관의 기술과 역량이며, 크게 개인 자산과 기관 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구분한다(Kretzmann & Mcknight, 1993). 두 연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지역자산의 분석수준과 측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개인 자산

개인 자산은 개인의 지식과 기술, 재능을 말하며, 재능을 기부하거나 받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과 이주민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연계하는 쌍방향적 관계를 포함한다(Kretzmann & Mcknight, 1993). 즉, 개인 자산은 다양한 개인들의 참여와 참여 대상의 확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자산화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복지 수혜자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있는지가 주요한 측정 기준이 된다.

2) 네트워크 자산

협회 및 기관 자산은 지역 내 공공기관과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경찰, 도서관, 박물관, 종교단체, 이익집단 등과의 연계를 뜻한다(Kretzmann & Mcknight, 1993). 또한 지역의 단체와 협회, 또는 기관들은 각자의 조직 운영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공통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때 원래의 목적 이상의 방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Shin, S.-Y., Han, S.-I., Chung, ., & Chung, S.-Y, 2014:23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회와 기관과의 연계를 네트워크 자산으로 간주하고,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 자기 조직의 목적 이상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해 네트워크 자산화를 측정한다.

3) 물리적 자산

물리적 자산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이나 사회간접자본, 자연자원 등이 포함되며, 공터 및 주거지역, 공원, 도로, 학교건물과 공공건물 등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한다(Kretzmann & Mcknight, 1993). 즉, 지역자산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산 현황보다 자산화(assetization)의 양과 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가 새롭게 발굴하거나 연계·활용하는 지역자산의 자산화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4. ABCD 모델과 주민자치회 선행연구

1) 주민자치회 성과와 과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의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행정으로부터의 수탁사업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세 환원 사업을 통한 재원조달(전대욱 et al., 2022:79)” 등의 공적 권한과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가시적으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간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원을 최대 50명으로 확대하고 공개 추천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마을 의제를 개발해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주민자치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위원의 남녀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등 구성면에서 대표성이 강화된 점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신수경 & 이상현, 2021:125).

또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작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밀착 행정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 및 협치를 전제로 한 주민조직이라는 태생적인 특성”을 지닌다(전대욱 et al., 2022:80).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한계가 되어 “단순히 행정의 보조나 보충을 위한 자원봉사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토대에 기반해 마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김정재, 2022:16).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앞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공개적으로 추천을 통해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과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민주적 구성 절차를 갖춘 심의기구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이 분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의제를 주민 스스로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공적인 지역자산을 관리하는 지역사회의 주체로 주민자치회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모든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절차와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의 제도를 갖춘 주민자치 대표기구는 주민자치회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자산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이라는 실재적인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신용인(2022)은 마을기금은 주민자치 내지 주권재민의 실질화를 위해 마을주민 전부를 주체로 요구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관리 주체로 적합함을 강조한 바 있다. 신용인(2022)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주체로서 주민자치회를 주목하게 하는 귀중한 연구이다. 전대욱(2017:19)의 경우에도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앵커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자산의 공유자산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더 많은 권한’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마을 공유자산의 관리 주체로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김정재(2022)는 주민자치회 참여와 성과 요인을 밝히기 위해 ABCD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ABCD 모델을 주민자치회에 적용한 연구로는 전대욱(2017)의 연구가 독보적이다. 전대욱(2017:23)은 ABCD 모델을 적용해 ‘소유보다 활용에 가치를 둔 공동소유’를 강조하고 지역의 공동자원을 관리·사용하는 주체로 주민자치회에 주목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물리적 자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 모델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도시재생 분야가 대표적이다(박인권, 2012; 이선영 & 남진, 2015; 이연숙 & 박재현, 2014; 이왕건 et al., 2011).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ABCD 모델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한상일 & 김경희, 2013)와 커뮤니티 케어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ABCD 모델이 적용된 연구들이 소수 있다(강현철 & 최조순, 2019). 그러나 지역사회의 공동자산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에 적용한 연구는 미미하며, 특히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ABCD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희소하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 기구로서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려면 조례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이나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인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ABCD 모델을 적용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주민 스스로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사례에 주목하였다.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2021년)에서 ‘코로나로 점점 멀어지는 이웃과 이웃을 서로 돌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우리 동네 생활안전망’ 사업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 수상, 2019년 장려상까지 지속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입증받은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역자산에 기반한 지역사회 활성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특정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과 분석을 위해 단일사례연구 방식을 택하였으며, 문헌분석, 현장방문,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심층면접은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임원과 간사, 주민모임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표 2〉참조), 총 4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자산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표 3〉참조). 또한 심층면접과 면접자들이 작성한 SNS(페이스북)에 전체 공개로 올려둔 경험내용, 안산 일동 공식 홍보 블로그 ‘상록일동 마을 이야기4)’ 등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개별심층면접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시 면접자의 특징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임의로 별칭을 붙여 기술하였다(〈표 2〉 참조).

〈표 2〉 개별심층면접 인적사항

No.	직위 및 경력	이름	별칭	성별	연령대	면접일
1	일동주민네트워크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2015~2016년)	윤OO	대표A	남	70대	22.12.27
2	올타리 넘어 대표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이사장	김OO	대표B	여	50대	22.12.28
3	주민자치회 회장(2020~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2017~2019) 일동주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오OO	임원A	남	50대	22.12.27

4) 상록일동 마을 이야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ildong_21 (검색일: 2023.1.10)

No.	직위 및 경력	이름	별칭	성별	연령대	면접일
4	주민자치회 부회장 성호도시농업연구회	이OO	임원B	남	60대	22.12.28
5	주민자치회 공동체문화분과장 참다운공동체·공유공간 마당 대표	변OO	분과장A	남	50대	22.12.27
6	주민자치회 생활복지분과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소OO	분과장B	남	50대	22.12.27
7	주민자치회 간사	민OO	간사	여	40대	22.12.28
8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하OO	센터장	남	30대	22.12.28

사전답사 포함 총 4차례 안산 일동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3〉 참조).

〈표 3〉 현장방문 일정 및 내용

No.	날짜	현장방문지
1차	2022.9.27(화)	퍼즐, 마을정원, 캘리포니아 공원, 송호초등학교, 마을카페 마실
2차	2022.12.20(화)	마실 카페, (주)메디로직스, 일동 행복마을관리소
3차	2022.12.27(화)	공유공간 마당, 마을카페 마실
4차	2022.12.28(수)	안산대학교, 청소년이만드는세상(청만세),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공유냉장고 설치장소

2. 측정수준 및 분석방법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산들은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재발견되거나 재창조’되어야 한다(박인권, 2012:19). 따라서 지역자산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산 현황보다 자산화(assetization)의 양과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지역사회가 새롭게 발굴하거나 활용하게 된 지역자산의 자산화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수준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개인 자산화, 네트워크 자산화, 물리적 자산화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다양한 개인들의 참여와 참여 대상의 확대를 통한 개인 자산화의 양과 질 측정, 둘째, 협회와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 과정과 역할을 통해 네트워크 자산화 측정, 셋째,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장소 등의 물리적 자산을 측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에서 “동네 생활 안전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자산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발굴·연결되고, 활용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IV.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지역자산화 분석 결과

1. 지역자산의 발굴 차원

1) 주민 리스트-업(list-up) 구축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개인들의 참여와 참여 대상의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과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관계 리스트업과 기록을 통해 다양한 활동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산 일동에서는 2018년 7월부터 한 기업⁵⁾의 후원을 계기로 ‘선배시민과 한끼나눔’ 프로젝트(일명 짜장데이)가 일동 중국음식점의 협력으로⁶⁾ 월 1회 열리고 있다. 처음에는 사전에 100명을 모을 방법을 찾는 것부터 난관이었지만, 지금은 꾸준히 선배시민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짜장데이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을 통해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받거나, 주민자치회와 ‘우리동네연구소 퍼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일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이 반찬을 전달할 가정을 선정할 때에도 활용된다. 짜장데이를 인연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계 리스트업(list-up)은 안산시에서 각 동별 어르신 공공 일자리 사업에도 활용되었다.

안산시에서 동별로 어르신 일자리 신청이 있었는데, 다른 동은 2주 동안 3명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짜장데이에서 홍보했더니 3시간 만에 60명이 모였어요 [오OO(임원A)].

짜장데이는 ‘이야기기록단’으로 이어져, 동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 「할매들의 찢 수다⁷⁾」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기록단을 모집하고 주 1회 글쓰기 수업이 진행,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글로 다듬는 전 과정은 안산 일동의 ‘명저읽는작은도서관’이 진행하였다.⁸⁾

5) 후원기업: 주성ENG(대표 운영주)

6) 정통중화요리 장백산

7) 「할매들의 찢 수다: 소소한 일상을 담다」도서정보: 지은이 명저읽는도서관. 출판사 도서출판 그린아이. 발행일 2021.11.30.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진행. 일동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력

8) 글쓰기 수업은 2020년 11월~2021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인터뷰 연습을 진행했다. 2021년 9월부터 개별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진행해 11월부터 책편집을 시작하였음

(일동에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하는 지킴이들이 10명 있는데) 어르신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접수받으면 방문해서 전등도 갈아드리고, 열쇠도 고쳐드려요. 대화를 나누면서 몸은 건강한지, 병원에 갈 일이 있는지, 우리가 도울 일은 무엇인지를 리스트로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만난 분들과 1년간 나눈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발간했어요[오OO(임원A)].

2) 상인회 발굴

안산 일동 상인회로 구성된 '일동상점가사람들'이 구성되는 과정에 '명저읽는작은도서관'관장⁹⁾의 역할이 컸다. 관장은 지역상점가의 상인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책수레를 끌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 책수레를 통해 책을 빌려보던 상인들이 모여 '일동상점가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안산 일동 내에서 동네 순찰 등의 봉사활동과 '동네 한 바퀴', 마을축제 등의 주민자치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공유냉장고 관리·운영의 주체로 참여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3) 공간 발굴

안산 일동은 앞서 4층 이하의 건물이나 빌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공용공간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하지만 일동만의 네트워크의 노력으로 크고 작게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였다. 마을정원 '정감톡톡'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자투리 공간을 찾아 크고 작은 마을정원을 가꾸는 등 공간발굴과 주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이룬 사례로 꼽힌다. 특히 파출소의 담장을 허물고 낮은 꽃 담장과 의자를 배치하는 등 마을의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마을의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평소 활용도가 떨어지는 파출소의 3층 공간을 자율방범대 준비하고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신협 3층 건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굴되었으며, 그 외 '우리동네연구소 펴줄'과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도 대표적인 공유공간으로 발굴되었다. 또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공유공간 마당'과 (주)메디로지스, 안산대학교, '명저읽는작은도서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공간들을 발굴해 공유하고 있다.

9) 심층면접에서 관장을 '플립'이라고 부름

2. 지역자산의 연계 차원

1) 주민네트워크와의 연계

안산 일동의 네트워크 자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2013년부터 시작된 ‘올타리 넘어’라는 모임에 주목해야 한다. 2005년 수다모임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우리동네방과후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세월호와 촛불 행사를 통해 공고해진 지역공동체는 ‘(사)올타리 넘어’를 창립하였다. ‘올타리 넘어’는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와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2개의 사업체와 ‘우리동네아빠모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영차어린이집’, ‘일동 여나래(엄마와 여성모임)’ 등의 협력단체와 많은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주민모임 형태를 넘어 마을과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올타리 넘어 회원들이 안산 일동 주민자치위원회¹⁰⁾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올타리 넘어로 마을에서 방과 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없는 공적인 문제와 연결된 것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일을 계기로 2013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김OO(대표B)].

2015년 안산 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과 분과장, 간사로 만난 원OO(대표A)과 오OO(임원A), 김OO(대표B)을 중심으로¹¹⁾ 안산 일동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17년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 300인 원탁회의를 통한 의제 도출’,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마을 축제와 마을 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천지일보¹²⁾).

제가 2015년부터 2년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몇 달 만에 축제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마을에서 핵심 멤버들은 직능단체장들이니까 (함께하자고)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면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모인 거예요)[원OO(대표A)].

10) 안산 일동은 2019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였으며,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음

11) 본 연구에서는 안산 일동주민네트워크의 시작이자, 현재까지도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 세 명 모두 개별심층면접을 진행하였음

12) 천지일보 (작성일: 2017.10.31.). <https://www.newscj.com/article/201710310540206> (검색일: 2023.1.11)

당시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일동 일등동네 주민협의회’를 발족했으며, 2020년 주민 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와의 원활한 관계설정을 위해 ‘안산시 일동주민 모임네트워크(이하 일동네트워크)’로 이름과 성격, 역할도 일부 조정하였다. ‘일동네트워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 자치회와 ‘새마을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직능단체, 상인회, 방범대와 주민 모임, 그리고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월 1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동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동네사람들을 속속들이 아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모르는 거 도움을 받으니까 좋다고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일동네트워크가 꼭 존속해야 된다고 평가해주더라고요[원OO(대표A)].

일동네트워크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한 가장 인상 깊은 사업은 ‘동네 한 바퀴’예요. 마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동네도 한 바퀴 돌고 공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그냥 하루 즐겁게 보내는 네트워크 자리인데, 21년 6월에 처음 모였는데 70명이 넘게 모였어요[오OO(임원A)].

2)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계

코로나19 시기 안산 일동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건강살롱’은 ‘이웃의 건강을 이웃이 챙기자’는 취지로 주민 스스로 만드는 마을 안전망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건강리더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양성된 마을 건강리더들과 ‘일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이 ‘우리동네연구소 퍼즐’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 ‘마을 건강 수다’, ‘찾아가는 건강 사랑방’ 활동을 펼쳤다. 건강리더 양성교육은 ‘우리동네연구소 퍼즐’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연계하여 진행하였고,¹³⁾ 안산병원과 안산대학교 간호학과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를 전문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안산대학교 ATC센터의 팀장이 마을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건강체조 교실을 강의를 진행하는 등 건강살롱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안산 일동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자산들이 연계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기관 등이 협업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13)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작성일 2020.11.19.) https://www.asmedcoop.org/bbs/board.php?bo_table=sub_9_1&wr_id=764. (검색일: 2023.1.11)

3) 일시적 공모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연계의 힘

각 집의 화분과 화단이 네트워크 자산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 안산 일동 ‘성호도시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마을농부’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텃밭을 가꿀 여분의 땅이 없고, 아파트 없이 일률적으로 3, 4층 빌라들이 많은 일동의 특징을 반영해 옥상텃밭과 집주변 자투리 텃밭을 가꾸었다. 또한 마을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자립경제를 실험해보자는 취지로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 ‘아빠의 서재’와 ‘성태산지킴이’, ‘일동주민자치회 공동체 분과’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기도 했던 도시농업전문가들¹⁴⁾이 합류하고,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과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옥상 공간을 활용해 텃밭 실습이 이루어졌다. 또한 옥상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작물을 마을축제 등에서 판매하였고¹⁵⁾,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주민자치회와도 연계되어 참가자들의 옥상투어로 이어졌다.

(옥상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옥상에서 화단이나 텃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니(옥상정원) 순회가 시작되었어요. 옥상 구경 가면 주스랑 커피 타와서 막 자랑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고 모종도 나눠주면서 너무 좋아들 해요. 그렇게 1년 농사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전도 했어요[변OO(분과장A)].

이번에 마을농부에 참여하면서 도시농업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융화가 잘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에게 참여의 기회도 드리고, (일회성으로) 교육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확한 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웃과) 나누니까 참여의 보람을 느꼈죠[이OO(임원B)].

우리동네연구소 퍼즐에서 일동행복마을관리소 분들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반찬 배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또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 모임 중 반찬을 만들어 먹는 모임인 ‘따순밥’과 서로 연결되었어요. (하나의 활동은 하나의 단체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성을 가지고 다른 활동과 지속적으로 무수하게 연결하다보니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김OO(대표B)].

14) 주민자치회 부회장 이OO(임원B), 변OO(분과장A)가 주민자치회 위원이면서 도시농업전문가들로 결합하였음

15) 참조: 안산시공식블로그 마을기자단. (작성일: 2022.10.1) https://blog.naver.com/ildong_21/222888764949. (검색일: 2022.1.11)

4) 마을돌봄을 위한 연계

다음으로 주목할 활동은 코로나19 시기에 안산 일동에서 진행했던 이웃의 안부를 묻는 ‘초록친구’이다. ‘마을정원사’와 ‘일동상점가사람들’¹⁶⁾이 반려식물과 콩나물시루를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1:1 초록친구 맺기’는 월 2회 안부 전화로 말벗과 정서 지원 활동을 펼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의 시작은 일동 주민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응원 도시락을 만들어 60개 상점에 나누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응원도시락은 ‘우리동네연구소 퍼즐’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마을의 청년¹⁷⁾들이 함께 제작·배달되었고, 주민의 재능기부로 캘리그래피 손편지 60개가 더해져 연계를 통한 마을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 공공기관과의 연계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공공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안산 일동은 지난 2018년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연구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일동행정복지센터’은 2019년 안산대학교와 민·관·학 업무협약식을 맺고 최대 3500명이 모일 수 있는 20여 개의 캠퍼스 공간을 마을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기부금을 모아 안산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쌍방향 네트워크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받아도 마을에서 같이 돕지 않으면 일이 잘 안돼요. 우리는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올라오면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가 협력하고 새마을부녀회와 협동조합 등이 협력 방안을 찾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일동행복마을관리소도 나서서 돕구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연대한 것이 4~5년 된 것 같아요. 마을에서 네트워크만 잘 되면 못할 게 없고, 겁날 게 없는 것 같아요[변OO(분과장A)].

일동 주민자치회는 호동초등학교와 성호중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총회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고, 학교의 지역사회교육복지전문가가 ‘일동네트워크’ 정기회

16) 일동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점들의 모임(일종의 골목상인회)

17) 응원도시락에 결합한 청년단체는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하 청만세)’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청만세는 청소년 문화공간 ‘춤추는 카페’ 공간을 마을과 공유하고, 마을 아카이빙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청년과 함께 마을 맵핑’, 청소년 마을안전 캠페인 ‘스쿨오브 히어로’ 등에도 참여하였음

의에 참석해 상시적으로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다. 학교 운동장의 풀이 10cm 이상 자라서 해결방안을 찾는 학교교장의 고민을 접한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풀을 제거하였으며, 초등학교 안전을 위한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에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였다.

3. 지역자산의 활용 차원

1) 지역자산을 활용한 마을축제

안산 일동의 네트워크 자산은 2022년 일동마을축제 ‘정감’¹⁸⁾을 진행한 과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10월에 성호공원에서 열린 마을축제 준비를 위해 6월부터 일동 축제준비단을 꾸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넘어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축제는 청소년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도 부스를 운영하는 등 안산 일동의 다양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마을축제였다. 또한 지역의 상인들도 참여해 지역과 상생하는 마을축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¹⁹⁾ 2022년 안산 일동 마을축제를 위해 설치한 부스만 40개가 넘으며, 지역주민과 단체, 상인들이 참여하였다.

(마을축제 기획과 참여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공연 같은 것은 어떤 사람들은 공연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른 동은 사회자도 유명한 연예인 이OO을 모셔왔더라구요. 그런데 마을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민OO(간사)].

축제준비단은 100일 동안 6번의 전체회의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부스와 공연에 참여한 사람만 4~500명이었다[하OO(센터장) SNS(페이스북)].

18) 2022년 일동마을축제 행사 주최: 일동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자치회 문화교육분과,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일동축제준비단, 협력: 일동행정복지센터, 일동주민네트워크, 일동통장협의회, 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일동체육회, 새마을남녀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마피아여, 명지읽는작은도서관, 삶이노래되게, 성호중학교, 스카우트해솔지역대, 안산제일신협, LNS,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일동상점가 사람들, 호동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학부모회

19) 안산 일동의 마을축제는 주민자치회 문화교육분과 사업으로 사업비가 배정된 해에만 추진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마을축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마을축제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음

(주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마을축제를 함께 기획하면서) 마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 같아요. 지역연계는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 일동에 와서 공동체 활동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하OO(센터장)].

2) 지역자산의 공유화

안산 일동에는 ‘공유부엌’과 ‘공유냉장고’, ‘공유상자’ 등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다. 공유부엌은 일동 마을공동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격주 250가구에게 배달한다. 공유냉장고는 현재 2개소에 설치해 주민 누구나 채워 넣고 가져갈 수 있으며, 냉장고 설치 장소 제공 및 관리는 냉장고 주변 ‘일동상점가사람들’ 회원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유상자는 자원순환실천을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입고된 물건들은 주1회 마을게시판에 공유하고, 10kg 이상 물건은 방문수거 서비스도 진행한다. 일부는 나눔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반찬을 넣을 수 있지만 주로 반찬가게 하시는 상인들이나 공유부엌에서 만든 반찬들도 들어가는데, 냉장고에 넣기가 무섭게 싹 빠져나가더라 구요[민OO(간사)].

3) 지역자산의 기록화

안산 일동의 물리적 자산화에 기여하는 또 다른 자산은 ‘기록’이다. 본 연구는 개별심층면접을 통해서 자료의 대부분 취합하였지만, 정확한 명칭이나 시기는 주로 안산시 상록수구 일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와 개별심층면접자들이 SNS(페이스북)를 통해 정보를 축적해왔던 자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관련 뉴스들도 많아 검증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와 참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김으로써 마을의 자산을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자산화(assetization) 소결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가 지역자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다양한 사람과 조직, 물리적 자산 등을 총망라하여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의 자산은 사람과 조직, 공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자산, 네트워크 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자산의 특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한 자산화 목록을 작성하였다.(〈표 4〉 참조)

〈표 4〉 연구를 통해 파악한 안산 일동 지역사회 자산 목록(종합)

자산범주	자산목록
개인 자산화	선배시민(어르신)·청소년들의 리스트업, 일동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 「할매들의 썬수다」이야기 기록단, 마을정원사, 일동상인들, 캘리그라피 전문가, 도시락배달 청년들, 이동책수레를 끌고 다니는 도서관 관장, 주민총회에서 투표하는 어린이들, 도시농업전문가들, 호동초·성호중 지역사회교육복지전문가, 파출소 경찰들
네트워크 자산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 안산 일동 주민네트워크, 짜장데이를 진행하는 중국음식점, 일동행복마을관리소, 일동마을정원팀, 명저읽는작은도서관, 일동상점가사람들,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사)올타리 넘어,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우리동네아빠모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영차어린이집, 일동 여나래,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호동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학부모회, 성호중학교, 자율방범대, 일동체육회, 새마을남녀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피아어, 삶이 노래되게, 스카우트해솔지역대, 안산제일신협, LNS, 성호도시농업연구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병원,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안산대학교 AT센터, 아빠의 서재, 성태산 지킴이, 파순밥 동아리,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한양대학교(ERICA) 등
물리적 자산	마을정원 조성, 파출소 꽃 담장과 벤치 조성, 파출소와 신협 3층 사무실, 빌라 옥상텃밭 조성,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공유공간,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공유공간,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앞 마을정원 조성, 공유공간 '마당'과 (주)메디로지스 사무실 공유, 안산대학교 20여개 공간 공유, 공유부역, 공유냉장고, 공유상자 등

이 지역자산 목록은 개별심층면접과 SNS, 공식홍보 블로그 등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인자산, 네트워크 자산, 물리적 자산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산 일동 지역자산을 모두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축적되었던 지역자산화의 형성 정도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산 일동 주민자치회는 개인 자산화를 통해 사람을 발굴하였다. 둘째, 다양한 주민조직과 마을사업, 기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자산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들이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했을 때 지역사회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ABCD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첫째, ABCD 모델은 지역사회 발전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유용한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ABCD 모델은 지역사회 내부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ABCD 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법론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구하는 ABCD 모델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이며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ABCD 모델은 지역적 맥락에 의존적이어서 결과 및 프로세스를 다른 지역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른 지역에서 ABCD 모델을 적용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철·최조순. (2019). 지역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1(1): 39-54.
- 김순은. (2014).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3-34.
- 김정인. (2022).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177-203.
- 김정재. (2022). 「자산기반 커뮤니티발전전략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참여와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용산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남수연. (2018). 지역사회개발 절충적 접근법의 이론 및 적용방안-국제개발협력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지니는 함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9(1): 425-456.
- 박경.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47(1): 87-123.
- 박인권. (2012).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4): 1-26.
- 신수경·이상현. (2021).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 「NGO연구」, 16(3): 107-140.
- 신용인. (2022). 주민자치와 마을기금. 「법학논총」, 35(2): 81-118.
- 오수길. (2014).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수단과 체계 분석:지역 활성화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9(1): 111-140.
- 윤지영. (2015).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부산발전포럼」, (153): 90-91.
- 이선영·남진. (2015).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실태 분석. 「국토계획」, 50(3): 123-151.
- 이연숙·박재현. (2014).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지역자산 기반 재생과정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4(3): 111-120.
- 이왕진·박태선·박정은·류태희·이유리.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전대욱. (2017).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독립과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의 시급성: 마을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 수행 필요, 소유보다 활용에 가치를 둔 공동소유 개념 확산시켜야. 「주민자치」, 68: 18-23.
- 전대욱·최지민·최인수. (202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4): 77-104.
- 주인석. (2020). 지역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방향-지역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일

- 전략」, 20(1): 115-149.
- 지경배. (2003). 내발적 발전론에 의한 지역정책의 전개를 위한 소고: 일본의 이론과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292-313.
- 한상일·김경희. (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방행정연구」, 27(3): 153-180.
- 한창묵. (2018). 주민 중심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연구: 행촌 마을 도시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938-956.
- Shin, S.-Y., Han, S.-I., Chung and Chung, S.-Y. (2014). Mobilizing Community Assets in Tikapur, Nepal: Applying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y. 「남아시아연구」, 20(2): 227-251.
- Lunt, N. (2019). 자산 및 역량 기반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영국의 사례.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겨울): 63-75.
- Bergdall, T. (2003). *Reflections in the catalytic role of an outsider*. Unpublished paper.
- Forrester, G., Kurth, J., Vincent, P. and Oliver, M. (2020). Schools as community assets: an exploration of the merits of an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approach. *Educational Review*, 72(4): 443-458.
- Friedli, L. (2013). 'What we've tried, hasn't worked': the politics of assets based public health. *Critical public health*, 23(2): 131-145.
- Kretzmann, J. P. and Mcknight, J. L.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_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
- MacLeod, M. A. and Emejulu, A. (2014). Neoliberalism with a community face? A critical analysis of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 Scotland.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2(4): 430-450.
- Mathie, A. and Cunningham, G. (2003a). *WHO IS DRIVING DEVELOPMENT? REFLECTIONS ON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Coady International Institute.
- Mathie, A. and Cunningham, G. (2003b). From clients to citizens: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Development in Practice*, 13(5): 474-486.
- Phillips, R. and Pittman, R. (2008). *An introduc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Routledge.
- UN HABITAT. (2008). *An Asset-based Approach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UN-HABITAT.

-
- 신 수 경:**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서 2001년 도시혁신 전공, 문학석사(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를 취득하고, 현재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혁신(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커먼즈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관한 연구(2021)”,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인식 유형-Q 방법론의 적용(2022)”과 「포틀랜드, 로컬과 혁신이 만나는 도시(2021, 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shra10003@hs.ac.kr).
- 이 상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01년 행정학 박사(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위천국가 산업단지 조성과의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를 취득하고, 현재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에 재직 중이며 동 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를 겸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정치생태학, 도시커먼즈, 기후위기와 탈성장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의 미세먼지 정치화의 정치생태학적 해석-국가의 ‘프레이밍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2021)”,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 전환 정책(2020)”, “녹색성장 경관의 생산과 소비 -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 분석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ttochi65@hs.ac.kr).

